

대구주보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2020. 12. 27. (나해) 제2248호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루카 2,40)



『아기 세례자 요한과 성가정,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1655~166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소중한 인성의 못자리, 가정



인평본당 주임 | 하상범 바르나바 신부

찬미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평화롭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서 어른이 되고, 삶 전체를 통찰하며 그 정점에 이를 때까지 삶의 기쁨이 되는 인성은 가정을 통하여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한 개인이 겪게 되는 일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은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길흉화복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하여 팔자타령으로 한숨짓거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상들 탓으로 치부하며 치성을 드려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바탕을 갖춘 인성을 신앙에 맞물린 기도생활과 더불어 지혜로운 삶의 연결고리를 찾고, 자신의 내면을 올바르게 다독이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낼 것인가를 궁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루카 복음 10장 27절의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자아의 인성을 하늘에 붙들어 매고 사랑의 정점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천상적 생명력의 계시적 가르침이자 인성을 더욱 풍요롭게 물들이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가정은 소중한 인성의 못자리입니다.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서로를 사랑으로 도와 건강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종교적 환경을 토대로 하늘을 향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얼굴이 밝게 빛날 때, 그 자리가 바로 천상입니다. 온갖 피조물들의 환성 가득한 낙원임을 온몸으로 깨우칠 때까지 하느님의 이끄심에 오롯한 마음으로 순응하며 하루하루를 복되게 꾸려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가난하고 고통받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드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거룩한 성탄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서도 따듯하고 친절하게 배어 나와 주변으로 번져가는 파스카의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필문**

천주교 대구대교구 2021 사제 · 부제서품

지난 20일(대림 제4주일)에 5명의 부제와 11명의 신학생이
각각 사제와 부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주님을 닮은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서품식 영상은 대구대교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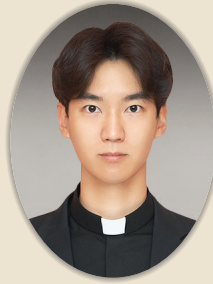
사 제



박 균 배(베르뇌 시메온)
중방성당



최 승 희(하상 바오로)
만촌2동성당



정 재 훈(가브리엘)
도량성당



이 동 혁(베드로)
만촌2동성당



최 원 모(베드로)
형곡성당

부 제

김 민 우 (요한 마리아 비안네)	옥수성당	이 동 재 (토마스 아퀴나스)	남산성당
강 동 협 (요셉)	이곡성당	조 영 래 (하상 바오로)	형곡성당
김 성 훈 (루카)	복자성당	조 흥 범 (가브리엘)	덕수성당
김 세 호 (바오로)	성토마스성당	황 보 근 (미카엘)	동촌성당
김 수 환 (제준 이냐시오)	중리성당	조 희 준 (대건 안드레아)	지곡성당
최 한 준 (요셉)	범어성당	-	-

가만히 고요히 머무르세요!

치유의 시작과 끝 : 행복 음미하기

교구 소람상담소장 | 김종섭 토마스 신부

어느 토요일 퇴근길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깨춤이 절로 났습니다. 신나는 노래를 틀어 놓고 흥얼대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문득 '왜 이리 행복하지?' 궁금해졌습니다. 가만 보니,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유난히 일이 많아서 새벽부터 매우 늦은 시간까지 바빴고, 끼니를 거르거나 퇴근 후 잠자리에 들기 급급했는데 어찌다 보니 그날만큼은 뉘엿뉘엿 넘어가는 노을을 배경 삼아 퇴근을 한 것이었습니다.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문득 사소한 일상 속에 기쁘고 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잊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퇴근길 15분 동안 만끽했던 행복감이 지금도 저를 웃게 합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며 많은 후회와 불안, 걱정,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럴 때면 스스로 불행하다 여겨져 행복해지고 싶고 기쁘고 즐겁고 싶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행복하고자 과거처럼 살지 않으려 하고 미래에는 변한 모습이 되고자 애를 씁니다. 예전엔 참 행복했는데... 그래서 그런 행복이 나에게 다시 찾아왔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오늘을 이미 지나버린 반성과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불안과 걱정 속에다가 갈아 넣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고통 중에 참고 견디고 사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고 힘들까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과 '행복하다'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해. 이런 일만 생긴다면... 이것만 있다면 행복할 텐데...'라는 식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하다'라는 주관 경험이지 '행복'의 기준,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현재 나의 경험이 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지금 이루어지는 '현재'입니다. 또한 '나의 경험'이어서 자각할 때, 자각될 때 성취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각, 스스로를 음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고요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행복하다'의 정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만히 고요히 머무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필문**



윤운혜 루치아 (? ~ 1801년)

윤운혜(尹雲惠) 루치아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양근의 한감개(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에서 살았으며, 일찍이 어머니 이씨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1801년에 순교한 정광수 바르나바는 그의 남편이고, 윤점혜 아가타는 그의 언니가 된다.

나이가 찬 후 루치아는 여주에 사는 정광수와 혼인하였는데, 비신자인 시부모의 반대로 혼인 문서는 주고 받을 수 없었다. 또 시부모가 조상 제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때마다 그녀는 '교회에서 금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루치아는 남편과 함께 부모의 곁을 떠나 한양의 벽동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때가 1799년이었다.

한양으로 이주한 뒤부터 루치아 부부는 더욱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면서 교회 일을 돕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기 집 마당 한편에 따로 집회소를 짓고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모셔다 미사를 봉헌하였으며, 그 집회소를 교우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때 그곳에 자주 모이던 교우들은 홍필주 필립보, 김계완 시몬, 홍익만 안토니오, 강완숙 골롬바, 정복혜 칸디다 등이었다.

루치아 부부는 전교에도 힘써 어느 누구보다 많은 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상분을 그리거나 나무로 묵주를 제작하였고, 교회 서적들을 베껴서 교우들에게 팔거나 나누어주었다. 그러던 중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나 언니 윤점혜가 체포되자, 루치아는 자기 부부도 오래지 아니하여 체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그녀는 남편 정광수를 피신시킨 다음, 교회 서적과 성물들을 다른 교우의 집으로 옮겨다 숨겨놓았다. 그리고 혼자 남아 집을 지키다가 2월에 체포되었다.

이후 윤운혜 루치아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배교를 강요당하며 신문을 받았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밝혀진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았으며, 배교도 거부하였다. 그러자 박해자들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루치아는 형장으로 끌려나가 5월 14일(음력 4월 2일)에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 형조에서 루치아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너는 남편을 도와 함께 행동하였으며, 시댁의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천주교 신자들과 이웃을 삼아 서로 교류하였고, 여성 교우들과 밤낮으로 얽혀 지냈으며, 교회 서적과 성화, 성물들을 비밀리에 제작하여 이곳저곳으로 가지고 다니며 팔았다. 여러 사람을 유혹해 들여 온 세상을 어지럽힌 죄는 만 번 죽어도 아 쉽지 않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2020년 제20회 가정 성화 주간 담화문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정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주교의

제20회 가정 성화 주간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집회 3,2-6,12-14	제 2 독 서	콜로 3,12-21	복 음	루카 2,22-40.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키워가는 신앙

마진우 요셉 신부 '포근한 가정 교리서'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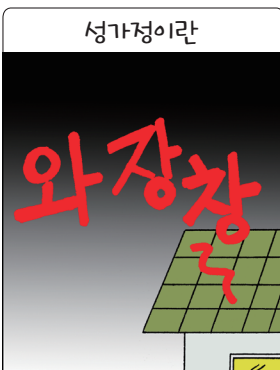
마진우 지음·그림 | 188면
10,000원 | 도서출판 벽난로

대구대교구 4대리구 복음화 담당 마진우 요셉 신부가 직접 만화를 그려 넣은 첫 신앙 교리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근본이 되고 중요한 사도신경, 7성사, 십계명, 자비 실천 항목까지 쉽게 설명 하였고, 행동이 따르는 산 신앙이 되도록 각 내용을 어린 이들이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마다 부모님이나 도우미와 함께 읽어가면서 길라잡이까지 해 나간다면 특히 코로나로 대면 교리 수업이 부족한 지금 어린이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들이 교리교사가 되어 자녀들과 함께 읽고 자녀들에게 설명함으로써 부모들에게도 신앙의 핵심을 한 번 더 짚어가면서 신앙심을 키워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가정이란



박성규 엘리시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는 아주 작은 사랑의 공동체...

미사 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8일(월) 10:30 범어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28일(월) 11:00 도량성당
-----------------	-----------------------	---------------	-----------------------

성소 | 피정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로

장소: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문의: (043)295-5940

cpnuskorea@catholic.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1.10(일) 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 19세~35세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교육 | 모집 | 기타

부산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정시 모집

접수: 2021.1.7(목) 9:00~11(월) 18:00

모집: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

문의: 입학관리부, (051)510-0702

http://ipsi.cup.ac.kr

목포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정시 모집

보건복지계열 특성화 4년제 대학

접수: 2021.1.7(목)~11(월)

인원: 간호학과 9명

인터넷 원서접수처: 유웨이

문의: (061)280-5108, 5150

예수회 실시간 영상 강의(ZOOM)

개강: 3.11 매주 목 14:00~16:00(11회)

주제: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강사: 권오면 신부 /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사랑의 기쁨'과 함께하는 가정성화 기도 이벤트 안내

"사랑의 기쁨"과 함께하는 가정성화 기도서를 12월 동안(12월 16일 ~ 27일) 함께하신 분들에게 알립니다. "사랑의 기쁨"과 함께하는 가정성화 기도서를 들고 구유 앞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그 중 100명을 추첨하여 케이크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1가구당 1회 응모)

기간 : 12월 27일 ~ 2021년 1월 8일 ※ 당첨자 선정 발표 : 1월 12일(화)

방법 : 천주교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 카카오톡 채널로 사진 전송

문의 :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 3114



대구주보 2021년 상반기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원고 모집

주제 및 내용 | 입교, 선교 등 기존의 신앙 수기 형식이 아닌 성경 말씀을 기초로,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고 체험한 소소한 이야기

분량 | 수필형식의 글로 한글 12포인트 A4 1페이지 **기간** | 12월 31일(목)까지 / 대구주보 이메일 jubo@dgca.or.kr

<p>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로스티노</p> <p>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p> <p>산격시장 앞 ☎ 053-959-7175 010-9597-7175</p>	<p>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p> <p>대항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p> <p>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p> <p>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10-6481-8848</p>	<p>작은카페 커피에디터</p> <p>대구시 중구 중앙대로77길 16 (중로2가 진골목)</p> <p>이 지 원(유스티나) 010-4573-1290</p>	<p>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p> <p>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p> <p>김태기(안토니오)</p>
<p>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p> <p>허 만 철(바오로) 하 중 순(요안나)</p> <p>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p>	<p>이데오피스·문구</p> <p>Canon 흑백복사기 60,000원/월 Canon 컬러복사기 90,000원/월 복사용지·문구류 무료배송</p> <p>흑백복사기(A3) 중급 기종 가능 053)756-0949 대표 황현진(필립보)</p>	<p>헤 렌 디자인하우스</p> <p>프리미엄 디자인가구</p> <p>박성용(알벨도) 대구시 북구 엑스코로 10 권나경(수산나) (엑스코 가구몰 지하2층) Cell : 010 7766 3198</p>	<p>명산공인증개사</p> <p>원룸, 투룸, 쓰리룸 임대·매매 전문 주택, 상가, 아파트, 빌라 매매 전문 공인증개사/법사회 이숙진(프란치스카)</p> <p>대구시 중구 국제보살로 150길 65-2 (삼덕청아람) 053-255-4008 010-7308-3102</p>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최병선(요한) 신부
1987년 12월 27일
- 김보록(바오로) 신부
1922년 1월 2일

행사 | 모임

바느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12.31(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제1대리구청 1층 강당

교육 | 모집

2021 전기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접수: 12.21(월)~31(목)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 신입생 모집

접수: 12.21~31 / 월, 목 야간 강의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학생 전원 50% 장학금
문의: 660-5252~4 / (010)6563-0409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 모집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DCU스마트인재장학 전원 장학혜택
접수: 2021.1.7(목)~11(월)
정원: 2,862명 / 문의: 850-2580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ME 주말

382차: 1.8(금)~10(일)
383차: 2.26(금)~28(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구약과 신약): (목) 10:00, 19:30
다시 읽는 구약성경(통독반): (수) 14:30
심화(성문서): (월) 10:00, 19:30
문의: (010)3311-2672
(010)8243-0195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일시: 2021.2~12(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대상: 15세 이상 남자 / (02)828-3600

채용 | 안내

동촌성모유치원 정교사 채용

대상: 경력 2년 이상, 몬테소리 자격

마감: 2021.1.10(일)

문의: 981-5248

안동교구 농은수련원 봉안경당 관리인 채용

자격: 소방, 위험물관리자 우대
근무: 주 40시간
마감: 12.30(수)
문의: (010)7103-0927

백합식품 메주 판매

수녀들이 직접 만든 순수 우리의 것
국산콩 100% 메주를 판매합니다.
문의: 백합식품본사, 857-2037
대구판매소, 257-1771
서울판매소, (02)2202-8392

파손 및 버릴 폐기용 성물 접수

성지에서 폐기해드립니다.(1박스 1만원)
주소: 문경읍 새재로 600(양업명상센터)
후원: 농협 301-0197-7617-31 안동교구
문의: 문경마원성지, (010)9944-014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2021년 대구주요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7~9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 신축 확장 이전 —
관철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 진 옥_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36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광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한투어 (주)한투어
HANTOUR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 053)427-7090
안상덕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前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053-255-2211

가톨릭피부과 의원
CATHOIC SKIN CLINIC
57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은진종합건설
리모델링
보일러, 수도누수, 방수
페인트, 타일, 창호
지붕공사, 전기누전, 막힌곳 "뽕"
정상진(그라시아노) 권순여(그라시아)
010-3526-7401